



돌이서 하나되어

7일 열린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남자 사이클 트랙 경기에서 캐나다의 다니엘 세리파와 일렉산드르 크로티어가 한 조를 이뤄 혼신의 힘을 다해 질

/연합뉴스

## 장애 뛰어 넘은 인간 승리 '지구촌 축제'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개막...열전 12일

148개국 7천300명 참가 '사상 최대'

한국 금 13개·종합 14위 목표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이 지난 6일 밤 공식 막을 올렸다.

베이징장애인올림픽조직위(BOCOG)는 이날 밤 9시(한국시간) 주경기장인 '궈자티 위장'(國家體育場)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열었다.

사상 최대인 148개국에서 온 7천300여명의 선수단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장애

를 뛰어 넘어 인간 평등을 확인하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앞으로 12일 간 20개 종목, 472개 세부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이날 개막식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독일, 이란 대통령, 대한민국의 한승수 국무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중국어 간체자(簡體字)로 표기한 각국 명

/연합뉴스

## 사이클 진용식 '은빛 질주'

공기소총 10m 男 이주희 '銅'...女 김임연 7위 그쳐



사이클 진용식(30·나사렛대·사진 오른쪽)이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에 은메달을 안겼다.

진용식은 7일 오후 라오산 벨로드롬에서 열린 남자 개인독주 3000m 결승에 진출해 세계기록 보유자인 영국의 케니 대린과 맞붙었으나 실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3바퀴째에 주월당해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진용식은 본선에서 3분58초817로 3위를 기록, 3·4위 전에 진출했지만 경기 직후 2위

## 성화 점화 또 큰 관심

지난 6일 밤 베이징 '궈자티위장'(國家體育場)에서 진행된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한 성화 점화는 지난달 베이징을 럭비 개막식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막식 중간까지도 주경기장 내에서 성화를 봉송할 주자들의 면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선수 대표의 선서 직후 주경기장 둑을 들여선 성화는 패럴림픽 여성 훨체어 펜싱 선수인 진정의 손에 들려있었다. 진정은 이어 한 쪽 다리를 목발에 의지한 장애인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유헌우에게 성화를 건넸다. 유헌우는 성화를 다시 원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패럴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장홍웨이에게 넘겨졌다. 성화는 이어 훨체어를 탄 패럴림픽 억도 금메달리스트 장하이동과 원쪽 무릎을 아래 절단 장애로 의족을 적용한 순창팅을 거쳐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국 최초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펑야리에게 건네졌다.

순창팅은 앞을 볼 수 없는 펑야리의 성화봉에 불이 붙지 않자 자신의 성화봉을 대신 그녀의 손에 들려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성화 최종 주자는 펑야리가 아니었다. 펑야리는 성화대 아래에 마련된 연단

위에서 훨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챔피언 호우빈에게 마지막으로 성화를 건넸다.

순간 관중석은 술렁였다. 호우빈이 자신의 훨체어에 연결된 로프를 직접 손으로 잡아당기며 조금씩 조금씩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한 쪽 다리가 없어 균형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인 듯 줄을 잡은 팔의 근육에는 경련이 일어난 듯 했고 얼굴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호우빈은 3분 가까운 '사루' 끝에 70여m 높이의 성화대 바로 아래에 다리를 수 있다.

/연합뉴스

## 휠체어 연결 로프 잡아당기며 70m 올라 점화

고 그 성화는 다시 원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패럴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장홍웨이에게 넘겨졌다. 성화는 이어 훨체어를 탄 패럴림픽 억도 금메달리스트 장하이동과 원쪽 무릎을 아래 절단 장애로 의족을 적용한 순창팅을 거쳐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국 최초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펑야리에게 건네졌다.

순창팅은 앞을 볼 수 없는 펑야리의 성화봉에 불이 붙지 않자 자신의 성화봉을 대신 그녀의 손에 들려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성화 최종 주자는 펑야리가 아니었다. 펑야리는 성화대 아래에 마련된 연단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성화 점화자인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챔피언 중국의 호우빈이 훨체어에 연결된 로프를 잡아당기며 성화대로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신지애 아쉬운 준우승

### 日 골프5레이디스 토너먼트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일본여자프로골프 골프5레이디스 토너먼트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신지애는 7일 일본 기후현 미조나이골프장(파72·6천53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출발했지만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2위에 머물렀다. 하루동안 5타를 줄인 후지타 사이키가 13언더파 203타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전날 8언더파 64타를 치며 단독 선두로 뛰어 오른 신지애는 버디와 보기를 번갈아 하며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이은혜(26)와 신현주(27)가 8언더파 208타로 공동 6위, 송보배(22·슈페리어)와 임은아(25)가 6언더파 210타로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 김위중 KPGA 연우혜 블랜드 정상

김위중(27·삼화저축은행)이 SBS코리아투어 연우혜 블랜드오픈 정상에 올랐다.

김위중은 7일 경북 성주 해브랜드골프장(파72·6천602m)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이글 1개로 8언더파를 기록,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2위에 3타 앞서며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지난 해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던 금강산 아남티 NH농협오픈 5위가 개인 최고 성적이었고 올해는 4월 SK텔레콤 오픈에서 6위에 올랐었다.

3라운드까지 팀 동료인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에 1타 뒤진 2위를 달렸던 김위중은 이날 보기 1개도 없는 깔끔한 플레이로 우승 상금 6천만원을 손에 넣게 됐다. 을 시즌 상금 4천343만8천400원(20위)보다 많은 돈을 이번 대회로 벌었다.

3라운드까지 1위를 달린 류 시준 상금 6천만원을 손에 넣은 김혜성(34·삼화저축은행)은 4타를 줄이며 19언더파 269타로 2위를 차지했다. 츄딘과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이 18언더파 270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 서희경 KPGA 2주 연속 우승

서희경(22·하이트)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 대회에서 2주 연속 우승했다.

서희경은 7일 충북 청원 실크리버 골프장(파72·6천38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김혜윤(19·하이마트), 김하늘(20·코오롱)을 1타차로 따돌리고 합계 7언더파 209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 주 하이원컵 SBS 채리티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차지했던 서희경은 이번

대회에서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아 6라운드 연속 선두 끝에 두차례 우승하는 진 기록을 세웠다.

서희경이 조심스런 경기 운영으로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한 사이 유소연(18·하이마트)이 전반에 버디 5개를 잡아내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유소연은 후반들어 4타를 잊어 우승 경쟁에서 밀어쳤고 서희경과 김혜윤, 김하늘 3파전으로 흘러갔다. 결국 우승컵은 서희경에게 돌아갔다.

### "영어 사용 의무화 철회"

#### LPGA 발표

미국 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그동안 논란이 되온 소속 선수의 '영어 사용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다.

LPGA 투어 커미셔너인 캐롤린 바이든스는 5일 협회가 정한 영어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수를 출전 정지시키는 별도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수정된 정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PGA는 2주 전 세이프웨이 클래식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영어 사용 의무화' 방침을 전달했으며 이 방침이 알려진 후 특히 아시아 선수들을 겨냥한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 앤서니 김 4위·최경주 5위

#### PGA BMW챔피언십 3R

앤서니 김(23)과 최경주(38·이상 나이 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BMW챔피언십에서 마리몬 레이스를 펼쳐며 우승 사정권에 들어섰다.

앤서니 김은 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벌러라이브 골프장(파70·6천456야드)에서 열린 2,3라운드에서 35홀을 도는 동안 7타를 줄여 중간합계 9언더파로 4위에 자리잡았다.

최경주는 2라운드에서 2타, 3라운드에서 무려 6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8언더파 202타로 공동 5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연합뉴스

##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내일 영광서 열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9~10일 영광군에서 열려진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5천290여 명(선수 1천924, 경기임원, 초청인사, 시·군임원 등 4천96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며 육상, 수영, 롬복, 보치아, 골볼, 배드민턴을 포함한 전문체육 10종

목과 전자다트, 농구자유투, 줄다리기, 사이클 등 생활체육 4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장태기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남장애인체육회가 정식 발족해 완벽한 조직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큰 잔치로 대회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볼트 역시 '인간 탄환'

### 골든리그 육상 100m 우승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육상 단거리 3관왕에 오른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가 100m에서 9초77을 찍고 시즌을 마쳤다. (사진 앞)

볼트는 6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골든리그 100m 결승에서 9초83에 그친 라이벌 아사파 과월(26·자메이카)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볼트는 긴 다리를 이용한 특유의 학다리 주법으로 과격의 스피드를 발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볼트는 긴 다리를 이용한 특유의 학다리 주법으로 과격의 스피드를 발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볼트는 긴 다리를 이용한 특유의 학다리 주법으로 과격의 스피드를 발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